

# 칸트의 전 비판기의 지성 개념과

## 초월철학의 문제 형성\*

— 『교수취임논문』을 중심으로 —

이 정 환

(서울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 들어가는 말

객관의 성립 근거가 인간의 주관을 통해 마련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다시 말해 주관이 객관의 근거일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른바 연역문제(Deduktionsproblem)로 회자되는 이 물음은 종래의 서양 형이상학의 진리 물음을 새로운 방식과 지평에서 제기하는 칸트철학의 핵심문제이다. 그런데 이러한 칸트의 문제 제기가 가능하기 위해서 우선 거쳐야 할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지성의 자리와 기원을 인간의 주관 속에 마련하는 문제였다. 칸트의 초월철학적 문제의식은 바로 지성이 인간의 주관 속에 자리매김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성을 주관 속에 자리매김하는 작업은 무엇보다 라이프니츠-볼프 학파로 대변되는 당시 강단철학의 지성 개념과 힘겨운 대결을 감내해야 했다. 왜냐하면 지성이 인간의 표상 능력이라는 주장은 당시 칸트가 처해 있는 형이상학적 상황에서 용인되기 힘든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형이상학에 있어 지성은 여전히 존재와 근원적 일치를 이루는 진리의 장소이며, 인간이 존재의 내면적 본질과 관계 맺어 진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원리였다. 형이상학의 존립은 바로 지성의 이러한 능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지성의 기원을 인

---

\* 이 글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2003년 2월)의 2장의 내용을 고쳐 쓴 것이다.

간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차치하고서라도 지성의 기원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가 이러한 형이상학적 전제와 구도에서는 결코 제출될 수 없었다. 칸트는 이와 같은 완고한 형이상학적 신념에 바탕한 지성 개념과의 대결을 우선 거쳐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대결 과정에서 칸트는 부단히 자기 비판과 수정의 과정을 또한 겪게 된다. 요컨대, 주관의 객관적 타당성의 해명이라는 칸트의 초월철학적 문제는 당시 형이상학의 지성 개념과의 대결과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부단한 자기비판과 수정을 통해 길어내어진 결과였다. 따라서 칸트의 문제가 담고 있는 고유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래 형이상학의 지성에 대한 입장이 칸트에게 어떻게 새롭게 이해되었으며, 이것이 그의 초월철학적 문제를 형성하는데 어떤 계기로 작용했는가에 대한 고찰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칸트의 초월철학적 문제와 논의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칸트의 초월철학의 출발점에서 있는 저작인 『교수취임논문』<sup>1)</sup>을 주로 검토하고자 한다.

## I. 『교수취임논문』에서의 지성<sup>2)</sup>에 대한 칸트의 입장

### 1. 지성과 감성의 구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실마리: 지성과 감성의 근원적 불일치

『교수취임논문』 초입에서 칸트는 ‘세계’라는 개념을 이루는 두 가

1) 이 저작의 원제는 『감성계와 예지계의 형식과 이 형식의 근거들에 관하여』(De mundi sensibilis atque intelligibilis forma et principiis, 1770)이다. 칸트 당시에는 대학의 정교수로 취임할 때, 의무적으로 라틴어로 된 논문을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논문은 바로 칸트가 1770년 쾨니히스베르크 대학의 논리학과 형이상학을 위한 정교수로 취임하면서 이러한 규정에 따라 쓴 논문이다. 이 저작을 통해 칸트는 지성과 감성에 대한 종래 형이상학, 특히 당시 강단 철학과 구분되는 칸트 자신의 새로운 입장을 분명한 형태로 드러내기 시작하며, 이후 지성과 감성의 초월철학적 구도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저작은 그의 초월철학의 발전사적 맥락에서 하나의 이정표적인 저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 주요 관념, 즉 '부분'과 '전체'라는 개념을 지성과 감성 각각이 표상하는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부분들이 주어질 때, 지성의 추상적 개념에 의해 전체의 합성을 생각하는 것과, 일종의 이성의 과제로서의 이러한 보편개념을 감성적 인식 능력을 통해 추적하는 것, 다시 말해 그 보편 개념을, 명증적인 직관을 매개로 구체적으로 표상하는 것은 별개이다. 전자의 경우는, (상호 관계에 있는) 다수의 것들이 합성이라는 개념 아래에서 파악되어지는 한에서, 합성 개념을 통해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따라서 지성적이고 보편적인 표상들을 통해 발생한다. 후자는, 우리가 부분에다가 부분을 순차적으로 덧붙이고, 따라서 합성된 것의 개념은 산출, 즉 결합을 통해서 가능하고 직관의 법칙에 속하는 한에서, 시간의 조건들에서 기인한다. (『교수취임논문』, §1)

칸트는 여기서 '부분'이라는 표상이 주어질 때 '전체'를 표상하는 방식에 있어 지성적 표상 방식과 감성적 표상 방식에는 서로 환원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지성을 통해 전체를 표상하는 방식과 감성이 전체를 표상하는 방식은 서로 별도의 표상 방식에 의거한다는 것이다. 지성은 부분과 전체를 보편성의 위계로 표상하는 반면, 감성은 시간이라는 직관의 법칙을 통해 부분과 부분을 순차적인 덧붙임으로써 전체를 구체적으로(in concreto) 표상한다.

부분과 전체에 대한 감성과 지성의 표상 방식의 차이를 통해 칸트는, 감성과 지성의 차이를 단지 표상의 명증성의 정도로 이해하는 중

- 
- 2) 아직 『비판』이전, 특히 『교수취임논문』에서는 지성(Verstand)과 이성(Vernunft)의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성'과 '이성'이라는 용어는 별 구분 없이 'intellectus', 즉 비감성적 인식을 의미하는 용어로 혼용하고 있다. 여전히 『교수취임논문』에서 지성이란 비감성적 인식능력 일반으로서 이해될 뿐, 『비판』에서처럼 이성과 구분되는 비직관적 판단 능력, 즉 논변적 표상방식으로서의 의미로 한정되고 있지 않다. 이성과 구분되는 지성에 대한 규정은 아직 많은 성찰과 반성의 시기를 겪어야 한다. 편의상 앞으로 'intellectus'는 지성이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래의 이성론자들의 입장을 비판한다. 즉 칸트는, 감성과 지성의 이러한 불일치를 보지 못하고 이 두 가지 능력을 뒤섞어 도출한 원리를 마치 객관적 사태의 원리라고 주장할 때, 사람들은 오류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칸트는 종래의 형이상학적 명제들은 감성과 지성 간의 종별적 차이를 무시하고 이 두 표상 방식을 부당하게 뒤섞어 마치 감성적인 원리를 지성적인 원리인 양, 가장하는 '사취된 공리들'(axioma subrepticum)<sup>3)</sup>이라고 판정한다.

기실 『교수취임논문』에서 지성과 감성에 대한 칸트의 이러한 구분은 종래의 형이상학이 터하고 있는 전제, 즉 감성은 지성으로 환원되어야 하는 불완전한 표상의 상태이며, 따라서 지성이 존재와의 궁극적 일치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표상의 방식이라는 형이상학적 신념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욱이 이를 통해 종래의 형이상학의 수행방식 자체를 문제로 다루고자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근본적이다.<sup>4)</sup>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칸트의 감성과 지성의 근원적 불일치에 대한 통찰이 그로 하여금 종래 형이상학, 특히 라이프니츠-볼프르 대변되는 당시의 강단철학의 지성에 대한 입장과 어떤 점에서 다른 길을 가게 했는지, 그리고 이로부터 어떻게 칸트의 새로운 진리물음(이른바 연역 문제)이 제출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앞서 간단히 살펴본 감성과 지성의 근원적 불일치로부터 비롯된 지성과 감성에 대한 칸트의 새로운 입장이 무엇인지를 살펴면서 우리의 논의를 시작해보도록 하자.

3) 칸트는 몇몇 대표적인 당시의 형이상학적 주요 명제들을 예로 들어 어떤 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리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없는지를 자세히 보여준다. 이에 대해서는 『교수취임논문』, §1, §26~§30 참조.

4) 특히 칸트의 지성과 감성에 대한 이러한 구분은 당시의 이성론자들의 입장 뿐 아니라 흄을 비롯한 경험주의적 입장과도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감성과 지성의 한계설정과 기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형이상학적이건 반형이상학적이건 각각의 입장이 터하고 있는 전제 자체를 주제화하지는 칸트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칸트 자신은 이러한 『교수취임논문』의 논의성격과 위상을 '형이상학을 준비하는 학'이라고 규정한다(『교수취임논문』, §8).

## 2. 감성과 지성의 구분에 대한 새로운 이해

감성과 지성의 구분은 칸트에게 새롭게 주목되기 이전부터 이미 서양 형이상학적 구도에서 주요한 구분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감성은 인간의 신체성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표상의 방식이며, 모든 우연성과 가상의 원천이었다면, 지성은 이러한 주관성과 우연성의 한계를 벗어나 진리가 실현되는 장소, 즉 존재 그 자체가 드러나는 장소로 여겨져 왔다. 지성을 통해 세계의 로고스에 참여하고자 했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이나 신과의 소통 가능성을 구하려 했던 스킨라 철학, 그리고 자연의 빛으로 지성을 이해하고자 했던 근대 초기의 철학까지 지성은 존재와 진리가 성립하는 유일한 통로로 여겨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감성을 통해 표상된 세계는 질료성, 즉 신체성이라는 불완전함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바대로’의 세계, 즉 현상계(phaenomenon)인 반면, 지성을 통해 표상된 세계는 존재 그 자체가 어떠한 매개를 통해 왜곡됨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세계, 이른바 본체계(noumenon)로 설정된다.<sup>5)</sup>

### (1) 주관의 고유한 세계 표상 방식으로서 감성(sensualitas)

『교수취임논문』에서 칸트 역시, 존재를 특정한 주관에 나타나는 바대로 있음(phaenomenon)과 그 자체로 있음(noumenon)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각각의 ‘있음’을 표상하는 방식으로 감성과 지성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종래 형이상학의 구분 도식을 따른다. 칸트에게 있어서도 감성은 완전한 자발성과 창조성을 갖지 못하는 인간 지성의 한계를 표시하는 표상능력으로 간주된다.<sup>6)</sup>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칸트는 감성의 수용성을 단지 지성을 통해 극복되어야 할 인간의 결여적 측면으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의 고유한 표상 능력으로 간주한다. 이제 감성의 수용성은 단순히 지성의 자발성 내지는 능동성의 결핍이 아니라 표상하는 유한한 정신의 고유

5) 『교수취임논문』, §3.

6) “감성은 주관의 수용성이다. 이를 통해 주관의 표상 상태가 어떤 객관의 상태에 의해 특정 방식으로 촉발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교수취임논문』§3).

한 성질로 이해된다. 그런데 감성을 지성의 결여가 아니라 고유한 성질 내지는 능력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칸트의 감성에 대한 이해는 바로 감성적 표상의 질료적인 측면(sensatio)과 형식적인 측면(sensibilium species) 간의 구분에 바탕하고 있다.

감관의 표상 중에는 우선 우리가 질료(materia)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 즉 감각(sensatio)이 있고, 우리가 형식(forma)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것, 즉 감성적인 것들의 형태(sensibilium species)가 있다. 이 형식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감관을 촉발한 잡다가 일종의 마음의 자연적 법칙을 통해 서로 병렬적으로 질서지워지는) 한에서 드러난다. (『교수취임논문』, §4)

따라서 감각적 인식에 속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감관의 감각 중에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인식이 감관의 인식이라고 불려지는 질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록 모든 감관의 감각이 결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표상들이 감성적이라고 불려지는 형식이다(『교수취임논문』, §5).

위의 두 인용문에서 칸트는, 감성적 표상을 감각(질료적 측면)과 감성적 표상의 형태(형식적 측면)로 구분하고 이때 후자의 측면에서 감성적 표상의 고유성을 찾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칸트는 감성에 대한 종래의 입장과 다른 길을 간다. 종래 형이상학에서 감성의 특성은 그 표상이 가지는 질료성, 즉 신체성에서 규정된다. 그런데 칸트는 이와는 달리, 감성의 특성을 그것이 관계 맺고 있는 소재의 특성, 즉 질료성 내지는 신체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형식의 고유성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칸트의 감성에 대한 새로운 본질규정은 다음의 진술에서 좀더 명확히 표현되고 있다.

7) 이러한 표상들을 병렬하는(beiordnen) 감성의 표상방식은 지성의 논리적 사용에서의 표상방식, 즉 표상을 개념의 외연과 내포적 위계로 종속하는(unterordnen) 표상방식과 구분되는 감성의 고유한 표상방식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감성과 지성의 표상방식상의 구분은 『비판』에 그대로 계승된다.

감성적 표상의 형식은 감각된 것들의 관계를 산출하기는 하나, 이 형식은 본래 객관의 윤곽이나 도식이 아니라, 객관의 현존으로부터 발생한 감각된 것들을 서로 병렬적으로 질서지우는, 마음 중에 심어져 있는 모종의 법칙이다. 왜냐하면 형식 혹은 형태를 통해서 객관들은 감관들과 맞닥뜨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감관을 촉발하는 객관의 잡다들이 몇몇 표상들을 전체로 결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마음의 내적 원리가 요구된다. 이 원리를 통해 객관의 잡다들은 어떤 항구적이고 본유적인 법칙<sup>8)</sup>에 합치하는 일종의 형태를 지니게 된다. (『교수취임논문』, §4)

위의 진술에서 우리는 특히 첫 번째 진술에 주목하게 된다. 칸트에게서 감성을 감성이게끔 하는 것은 감성이 관계하는 소재, 즉 질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성이 그의 소재와 관계하는 방식, 즉 감성적 표상의 형식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은 우리의 마음, 즉 인간 주관에 기원을 두고 있는 일종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칸트의 감성에 대한 본질규정은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감성과 지성의 근원적 불일치에 대한 칸트의 통찰에 바탕하고 있다. 앞서 말한 칸트의 통찰이란 감성과 지성의 차이는 그것이 산출한 표상의 결과물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능력들이 발휘되는 표상의 방식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통찰에 바탕하여 칸트는 감성에 대한 본질 규정을 그것이 관계하는 소재에서 찾고자 했던 종래의 입장과 달리, 관계하는 방식, 즉 감성적 표상 작용의 형식에서 감성의 본질을 규정하게끔 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감성은 이제 객관의 참모습을 대강의 윤곽으로 드러내는 존재자의 불완전한 잔상이 아니라 객관을 표상하는 주관의 고유한 표상 법칙으로 이해된다. 즉 감성은 객관의 수동적 모사가 아니라 나름의 고유한 표상 법칙에 따라 객관을 질서지우는 마음의, 따라서 주관의 표상능력의

8) 이 법칙이란 바로 『교수취임논문』, §13에서부터 시작되는 「감성계의 형식의 근거들에 관하여」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형적 직관 형식인 공간과 시간을 말한다. 공간과 시간이 객관의 본질적 속성이나 관계가 아니라 표상하는 주관의 내적 원리라는 초월적 관념론의 입장은 이미 『교수취임논문』에서 관철되고 있다.

규칙성이며, 따라서 감성적 표상으로 그려진 세계, 즉 현상계란 존재자의 불완전한 그림자 내지는 가상이 아니라 진리가 실현되는 특정한 방식이다.<sup>9)</sup>

## (2) 진리를 표상하는 능력으로서 지성(intelligentia)

비록 『교수취임논문』에서 감성이 주관의 고유한 표상 능력이며, 나름의 진리가 실현되는 방식으로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진리가 실현되는 본래적 장소는 종래 형이상학적 입장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감성이 배제된 지성에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칸트는 지성을 통한 인식에 대해 예의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주관적 조건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모든 인식은 오직 객관에만 관계한다. 그래서 명백히 감성적으로 사고된 것은 그것들이 나타나는 바대로 사물들의 표상들로 존립하나, 지성적으로 사고된 것은 그것들이 있는 바대로 사물들의 표상들로 존립한다. (『교수취임논문』, §4)

지성은 감성과 달리 주관의 물질적 조건, 즉 감각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따라서 객관과 능동적인 방식으로 교섭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관과 객관의 영역 구분은 각각 질료와 형식의 구분을 말한다. 지성은 질료적 조건(인간의 신체성)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에서 초주관적인 능력(즉 비질료적이며, 그리하여 비감성적인 능력)으로 간주된다. 그도 그럴 것이 주관과 객관의 구분이란 존재자를 객관으로 맞닥뜨리는 신체적 주관의 불완전성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이란 존재자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감성적 주관의 불완전성을 표시하는 존재자의 드러남의 양태에 다름 아니다. 이에 반해 지성은 주관의 신체성, 즉 질료성(감각)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따라서 지성의 차원에서

9) “비록 현상계는 본래 사물의 모사(Abbilder)이지, 원형(Urbilder)은 아니지만, 그리고 어떠한 내적이며 절대적인 객관들의 성질(Beschaffenheit)을 표현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계에 대한 인식은 전적으로 참이다.”(『교수취임논문』, §11)



는 주관과 객관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지성은 주관과 객관, 사유와 존재의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능력이라는 것이다.

기실 이러한 칸트의 주장은 앞서 감성에 대한 칸트의 새로운 이해와 상충된다. 감성이 지성과 근원적으로 구분되는 고유한 표상능력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감성과 지성이 진리 성립에 있어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는 것을 또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칸트는 한편으로는 감성을 주관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지성을 진리의 본래적 장소라고 말하면서 감성보다 탁월한 능력임을 암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칸트의 비일관성은 아직 감성과 지성에 대한 초월철학적 관점이 분명히 확립되지 않은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지점이며, 이는 『교수취임논문』 이후 감성과 지성의 관계에 대한 입장이 다시금 수정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대한 논의로 우리의 주제를 옮겨가기 위해 우선 칸트의 지성의 표상작용에 대한 해명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 (3) 지성의 활동 방식의 두 가지 구분

감성과 지성의 구분에 대한 논의에 이어 칸트는 지성의 활동 방식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칸트는 지성의 활동 방식을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지성적인 것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위 능력인 지성의 사용이 이중적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 중 지성의 첫 번째 사용을 통해서, 사물 혹은 관계의 개념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지성 사용은 실재적 사용(*usus realis*)이다. 그러나 지성의 두 번째 사용을 통해서 사물 내지는 관계의 개념들은, 그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든지 간에, 단지 개념들 서로 간에 위계적으로 질서 지워진다. 다시 말해 하위 개념이 상위 개념(공통 징표)에 종속되고 개념들 서로가 모순율에 따라 비교된다. 이러한 지성 사용을 논리적 사용(*usus logicus*)이라고 한다. (『교수취임논문』, §5)

우리는, 위의 인용문에서 칸트가 어떤 근거에서, 그리고 왜 지성을 그것의 사용의 측면에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선 의문을 갖게 된다. 기실 지성의 활동 방식을 그것의 사용의 측면에서 논리적 사용과 실제적 사용으로 구분하는 것은, 감성과 지성의 기원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종래의 이성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낮은 것이었다. 그러나 지성의 표상 작용에 대한 이러한 구분은 지성과 감성을 서로 환원될 수 없는 두 가지 능력으로 이해하는 앞서의 칸트의 입장에서 보자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귀결이다. 칸트는, 라이프니츠와 달리 감성이 지성화될 수 있음을 부정하였다. 감성은 결국 지성으로 환원될 수 있는, 지성의 불완전한 표상 단계가 아니라 지성과는 종별적인 차이를 가지는 표상하는 주관의 고유한 능력이라는 것이다. 이제 감성은 지성을 통해 환원되거나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의 궁극적인 타자(das grundlegliche Andere)로서 자리매김 된다. 즉 지성은 감성과, 결코 자기 자신으로 만들 수 없는 타자로서 관계하게 된다. 따라서 지성에게 타자인 감성과 관계해야 하는 지성에게 있어서, 그의 활동 방식은 감성과 관계하는 활동 방식과 지성 자신과 관계하는 활동 방식으로 구분된다. 위의 인용문에서 칸트가 지성의 작용을 논리적 사용과 실제적 사용으로 구분하는 것은 바로 지성이 자기 아닌 것, 즉 감성에 적용될 때와 지성 자신에게 적용될 때의 각각의 활동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지성의 논리적 사용이란 지성이 감성과 관계하는 활동 방식이며, 실제적 사용이란 지성 자신의 순수 활동성을 말한다.

#### ① 지성의 논리적 사용(usus logicus)

논리적 사용에 있어서 지성의 능력은 주어진 표상 — 그것이 감각적 표상이건, 순수 직관적 표상이건, 이미 개념으로 주어지건 간에 — 을 비교하고 구별짓는 방식으로 발휘된다. 이때 주어진 표상이 비교되고 구별 지워지는 기준이 바로 모순율과 동일률이다. 모순율과 동일률을 기준삼아 지성은 주어진 표상들을 서로 동일하거나 대립하는 것으로 비교, 구별지우고 각각의 표상들을 보편성에 따르는 종속 관계로 자리매김한다. 이를 통해 지성은 ‘각각 인식을 다른 감각적 인

식 또는 공통의 개념에, 그리하여 무규정적인 현상(apparentia)은 좀더 보편적 법칙에 종속·시킴으로써 규정적 현상(phaenomena)으로 이행하게 한다. '경험'(experientia)이란 바로 감각을 통해 주어진 무규정적 현상(apparentia)이 지성의 논리적 사용을 통해 규정된 현상(phaenomena)으로 이행된 것에 다름 아니다.<sup>10)</sup> 한 마디로 지성의 논리적 사용은 경험개념을 형성하는 판단작용이다.<sup>11)</sup> 이와 같이 지성이 감성적 표상에 적용되어 논리적으로 사용될 때 관심을 갖는 것은 개념들 사이의 보편적 위계나 개념의 판명성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의 판명성에 관계하는 지성의 사용을 통해서는 결코 존재의 진리에 이를 수 없다고 칸트는 주장하고 있다. 주어진 개념을 아무리 정밀하게 분석하고, 판명하게 구분하고 규정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 그 자체, 존재 그 자체에 대해 아무런 진리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순전한 논리적 사용을 통해서 지성은 세계를 향해 감성적 주관의 영역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성의 논리적 사용은 감각 인식을 경험, 즉 규정된 감성으로 만들 수 있을 뿐이지, 이것이 지성의 기능이라고 해서 감각 인식을 지성 인식, 즉 예지계의 인식으로 만들지는 못한다.<sup>12)</sup>

지성의 논리적 사용이 얼마만큼의 범위까지 그 인식에 미치는 지 간에 여전히 감성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

10) 『교수취임논문』, §5.

11) 『교수취임논문』에서 칸트는 지성의 논리적 사용과 판단작용을 동일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판단 작용이란 표상의 개념적 분석작용에 한정된다. 지성이 감성에 적용되는 방식을 『교수취임논문』에서는 아직 분석 작용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기서 칸트의 입장은 여전히 라이프니츠-볼프의 판단에 대한 입장과 가까우며, '지성의 모든 활동들은 판단들로 환원될 수 있다'(A69=B94)거나 '판단은 지성의 종합적 통일 작용'이라는 판단에 대한 『비판』의 입장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

12) "감각 경험적 개념은 좀더 커다란 보편성으로의 소급을 통해서는 실재적인 의미에서의 지성 개념이 되지 않으며 감성적 인식을 넘어서지 못하고 다만 그 개념들이 어느 범위까지 추상을 통해 높여진다 하더라도, 감성적인 것으로 남아 있다."(『교수취임논문』, §5).

하면 그 인식들은 그들의 기원으로 인해 감성적인 것으로 불리는 것이지, 동일성과 차이성에 관한 어떠한 비교로 인해 감성적이라 불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같은 곳)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형이상학이 가능하다면, 다시 말해 존재를 존재 그 자체로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리하여 결국 진리가 실현되려면), 이것은 감성과 독립적으로 사태 자체와만 관계하는 능력, 이른바 실재적 사용이라 부를 수 있는 지성 자신에서 기원하는 능력을 통해서 가능할 뿐이다.<sup>13)</sup>

## ② 지성의 실재적 사용(usus realis)

지성의 ‘논리적 사용’과는 달리 ‘실재적 사용’을 통해서 지성은 사물 자체와 그 사물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개념들이 표상된다고 칸트는 말한다. 지성이 존재의 진리가 드러나는 장소라면, 그것의 본질은 순전히 논리적이거나 파생적인 사용을 통해서 포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직 지성이 자기 자신의 순수성 속에서 대상의 본질을 스스로 표상하고 개념화할 수 있을 때, 이때만이 지성은 비로소 존재의 진리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처럼 논리적 사용의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 경험적 소여를 통해서가 아니라 — 사물과 그 관계 개념의 근원적 산출을 통해 지성이 대상과 관계할 때, 그것을 가리켜 칸트는 지성의 실재적 사용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성이 실재적으로, 즉 자기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비롯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 다시 말해 지성이 논리적 사용이 아닌 방식으로 사물과 그 관계 개념을 근원적으로 표상하는 방식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말하는가? 유감스럽게도 『교수취임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더 이상 제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해명의 불충분함 역시, 이후 커다란 결함으로 지적되

13) “엄격한 의미에서의 지성적인 것 — 그 경우 지성의 사용은 실재적 사용인데 — 에 관해서는, 그러한 지성과 관련된 개념들은, 사물의 개념이건 관계의 개념이건 간에, 지성 자신의 본성에 의해 주어지고, 그 개념들은 감각의 어떠한 사용으로부터 추상되지도 않고 감성적 인식의 어떠한 형식도 포함하지 않는다.” (『교수취임논문』, §6)

고 새로운 해명을 요구받는다.

③ 형이상학적 개념들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런데 우리는 다음의 구절에서 지성 작용의 실재적 사용에 대한 해명과 관련하여 칸트의 또 다른 주장을 만나게 된다.

그리하여 형이상학에서는 경험적 원리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개념들은 감각 속에서가 아니라, 순수지성의 본성 자체 속에서 구해져야만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본유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신 속에 이미 심어진 법칙으로부터 (경험적 기연을 통해 지성이 자신의 활동에 주목함으로써) 이끌어낸 개념, 따라서 획득된 개념이다. 이러한 종류의 것으로 가능성, 현존, 필연성, 실체, 원인 등과 같은 개념들과 이것들의 상대 개념 및 상관 개념들이 있다. (『교수취임논문』, §8)

위 인용문에서 칸트는 지성 작용의 실재적 사용과 이를 통해 표상되는 사물 자체와 그 관계 개념, 이른바 형이상학적 개념들과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주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사물과 그 관계 개념들, 이른바 형이상학적 개념들은 순수지성의 본성 자체에 근거하는 순수지성개념들이다. 둘째, 순수지성개념들은 본유적인 개념이 아니라 획득된 개념이다. 첫 번째 주장에서 칸트의 입장은 종래의 이성론자들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문제는 칸트의 두 번째 진술에 있다. 즉 칸트에게 있어 사물과 그 관계 개념은 종래 이성론자들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순수 지성에 근거하고 있지만, 다시 말해 순수지성개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종래 이성론자들이 주장하듯이 그것의 기원에 있어 이미 지성에 본유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획득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얼핏 위의 진술만으로 우리는, 칸트가 자신의 순수관념에 대한 입장과 구별지으려고 하는 라이프니츠의 본유관념설과 어떠한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기실 경험을 기연으로 순수지성개념이 이끌어진다는 것은 라이프니츠의 주장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그의 여러 저작과 문건들 곳곳에서 순수지성개념은 결코 본유관념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가령 『형이상학 강의』의 한 대목에서 칸트는, ‘우리는 어떠한 본유적 개념들도 지니고 있지 않다’<sup>14)</sup>라고 말하면서 라이프니츠의 지성개념에 대한 입장과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나아가 칸트는 본유관념에 대해 상당히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sup>15)</sup> 그렇다면 칸트는 왜, 그리고 어떤 점에서 순수지성개념이 본유관념임을 그토록 부정하면서, 이를 획득된 개념이라고 주장하는가? 그리고 이를 통해 칸트가 종래 이성론자들의 본유관념설과 어떤 점에서 자신의 순수지성개념을 구별지으려 하고 있는 걸까? 이러한 우리의 물음을 풀기 위해 다음의 한 구절은 중요한 힌트를 제공한다.

어떤 개념은 감각으로부터 추상된다. 그러나 다른 개념은 추상화된 개념들을 비교하고 결합하고 분리하는 지성의 법칙으로부터 추상된 것이다. 이 나중의 개념들의 원천은 지성 속에 있으며, 앞의 개념의 원천은 감각 속에 있다. 그러한 종류의 모든 개념은 순수한 지성 개념이라 불린다. 우리는 오직 감성적 감각의 기연을

14) AA28, S.542 참조. AA는 학술원판(Akademie-Ausgabe)의 축약어이며, 아라비아 숫자는 권수.

15) “우리는 그것[지성 개념]들을 타고난 것 내지 본유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은 모든 탐구를 끝장내게 하고 그래서 매우 비철학적이다.”(AA28, S.233)

“그러나 전자(시간과 공간 개념이 본유적이라는 주장)는 게으른 자들의 철학에 길을 터주는 것이다. 이들은 첫 번째 원인을 끌어냄으로써 모든 계속되는 탐구를 쓸모없는 것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함부로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 이 두 개념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획득된 개념들이며, 이 개념들은, 비록 객관들의 감각적 지각으로부터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감각은 우리 인식의 질료를 제공할 뿐이지, 형식을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감각된 것을 향존하는 법칙들에 따라 서로 병렬적으로 질서지우는 인식능력의 활동 그 자체로부터 이끌어져서, 불변적인 형상으로서, 따라서 직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교수취임논문』 3절, Zusatz, AA2, S.406)

시간과 공간이 감성의 활동 자체로부터 획득된 개념이듯이, 순수지성개념 역시 지성의 활동성과 독립적으로 이미 자신의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의 순수한 활동 자체로부터 획득된 개념이라고 칸트는 주장하는 것이다.

통해 지성의 이러한 활동을 출발시키며, 보편적 관계들로부터 추상된 관념들의 특정한 개념을 지성의 규칙에 따라 의식하게 된다.

(R3930,<sup>16</sup>) AA17, S.352)

위의 인용문에서 우리는 앞서 칸트가 '경험을 기연으로 획득된 개념'이라는 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 즉 '경험을 기연으로'라는 표현을 통해 칸트는, 순수 지성 개념은 결코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물론, 경험에 앞서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칸트의 표현 속에 암시되어 있는 더 근본적인 새로움은 바로 순수지성개념을 지성의 활동성의 규칙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칸트의 획득된 개념으로서의 순수지성개념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본유관념에 대한 칸트의 부정적 입장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연유하고 있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칸트에게 있어 본유관념을 주장하는 이들의 오류는 바로 이점에 있다. 그들은 순수지성개념을 하나의 사물적 존재자로 간주한다. 순수지성개념은 지성이 그것에 이르러야 하는 하나의 객관으로 지성에 자리하고 있을 뿐이다. 지성은 자신 속에 그러한 개념을 마련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 충족적이지만, 결국 그러한 개념은 지성 자신에게 하나의 대상으로서 관계할 뿐이다. 이에 반해 칸트는 순수 표상을 더 이상 하나의 사물, 하나의 존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활동으로 이해한다. 이제 형이상학적 개념은 사유와 구분되어 이미 존재하는 것. 사유가 발굴해내야 할 기존하는 관념이 아니라, 사유의 활동 방식으로, 즉 사유가 자신의 행위의 규칙로서 이해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칸트에게 있어 형이상학적 개념은 주관적 개념이다.<sup>17)</sup>

요컨대, 칸트가 형이상학적 개념들은 획득된 개념으로 말하면서 의미하는 것은 바로 형이상학적 개념들이 지성에 단지 그의 '자리'(Sitz) 뿐만 아니라 그 '기원'(Ursprung)까지도 가지는 주관의 순수개념, 즉

16) 칸트의 수고의 조각글은 학술원판의 편집에 따라 그 숫자를 표기한다. 그리고 각각의 조각글이 쓰여진 연대와 시기는 학술원판의 편집자인 아디케스(Adickes, E.)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17) R3981, AA17, S.375, 1769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

지성 주관에 의해 정립된 개념(gesetzter Begriff)이라는 것이다.<sup>18)</sup>

## II. 『교수취임논문』에서 지성에 대한 칸트의 입장의 한계와 초월철학적 지평으로 이행

지금까지 우리는 『교수취임논문』에서 칸트가 종래의 형이상학과 자신을 구분 짓는 지성에 대한 몇 가지 입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1. 감성과 지성은 표상을 산출하는 능력에서 비롯되는 차이에 따라 근원적으로 구분된다.

2. 따라서 사물과 그 관계 개념들, 이른바 형이상학적 개념들을 산출하는 지성의 본성적 활동은 개념의 명료화 작용, 즉 감성과 관계하는 지성의 논리적 사용과는 다른 활동이다.

3. 그런데 지성의 실재적 사용에 근거하는 순수지성개념은 사물적 존재자의 원형이 지성에 미리부터 심어진 본유관념이 아니라 지성의 본성적 활동을 통해 획득되는 주관적 관념이다.

『교수취임논문』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칸트의 지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라이프니츠-볼프 철학의 형이상학적 전제, 즉 감성과 지성의 근원적 차이와 이에 근거한 지성과 존재의 무제약적 동일성에 대한

18) “지성에 그의 자리와 기원을 가지는 원인의 개념은 그것을 통해 대상의 인식과 관계하는 것이다.”(『형이상학의 진보』, A10)

이는 본유관념과 순수지성개념이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지점이다. 본유관념은 단지 인간 지성에 그의 자리를 가지지만 그 기원은 결코 인간 지성에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에게 마련된 본유관념을 통해 객관 그 자체를 표상할 수 있을 뿐, 본유관념의 최종적인 기원은 아니었다. 그러나 칸트의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그의 자리 뿐 아니라 기원도 지성의 표상 작용의 필연적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칸트의 주장은, 형이상학적 개념은 더 이상 주어진(gegeben) 개념이 아니라 정립된(gesetzt) 개념이라는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비판의 결과였다. 다시 말해 『교수취임논문』에서의 비판의 핵심은, 감성은 지성과 근원적으로 구분되는 능력이며 지성이 감성적인 표상 방식과 결합되어 있는 한 결코 존재의 진리를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당시 강단 철학의 형이상학적 탐구 방식, 즉 논리학을 통해 존재론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근거하고 있던 형이상학적 전제를 비판하고 있다. 이때 논리학이란 바로 표상의 개념적 분석 작업을 의미하며, 이는 감성을 지성화하는 작업, 다시 말해 감성적 표상을 개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명료한 표상으로, 즉 지성적 표상으로 순화시키는 작업인 것이다. 이러한 종래의 형이상학에 대한 방법론은 감성이 지성과 근원적으로 다른 표상의 방식이라는 칸트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수취임논문』의 비판적 성과였다.

그러나 종래 형이상학에 대한 칸트의 이러한 비판은 아직 그다지 철저하지는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비판들 간에는 비일관되고 심지어 모순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수취임논문』의 문제는, 앞서의 고찰에서도 언급했듯이, 바로 지성에 대한 칸트의 불충분한 해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수취임논문』 당시의 칸트에게 있어 지성은 여전히 사물 자체를 인식하는 능력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즉 『교수취임논문』에서 칸트는 지성은 여전히 사유와 존재의 근원적인 일치를 실현시키는 탁월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감성과의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는 지성의 순수한 본성에 근거한 자발적 활동을 통해 사물 자체와 그 관계 개념을 표상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종래 형이상학적 신념에 철저히 매여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칸트는 사물과 그 관계 개념의 기원은 지성 주관 자신에 의해 획득된 개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형이상학적 개념은 주관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칸트의 두 주장은 당장 다음의 문제를 던진다. 어떻게 지성 주관의 개념이 동시에 사물(객관)과 그 관계 상태를 지시하는 개념일 수 있는가? 지성 자신에서 비롯된 개념이 동시에 객관의 표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나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이 『교수취임논문』에는 결여되어 있으며, 이러한 불충분한 해명은 얼마 지나지 않아 칸트 자신에게 심각한 결합으로 지적된

다. 우리는 이러한 『교수취임논문』의 입장에 대한 칸트의 자기비판과 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새로운 지평 위에 다시금 수립하려는 모습을 1772년 2월 21일 칸트의 제자이자 동료인 마르쿠스 헤르츠에게 보내는 서신(이하 「헤르츠 서신」)을 통해 분명한 형태로 볼 수 있다.

### 1. 『교수취임논문』의 지성에 대한 입장에 내재된 모순의 발견

「헤르츠 서신」의 한 대목에서 칸트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본질적인 어떤 것, 즉 나의 오랜 형이상학적 탐구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나 역시 주목하지 못했던 어떤 것, 그러나 실상 지금까지도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형이상학의 모든 비밀의 실마리를 이루는 것을 결여하고 있었음을 알아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표상이라 부르는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대상이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떤 근거에서 비롯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AA10, S.130)

칸트는 위의 진술에서 오랫동안 서양 형이상학의 중심 문제였던 사유와 존재의 일치 문제를 새삼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이 문제는 칸트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형이상학에 종사해왔던 사람들이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문제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상학의 모든 비밀을 푸는 실마리로서 반드시 물어 밝혀야 할 것으로 말하고 있다. 왜 이 문제가 새삼 주목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가? 사유와 존재, 표상과 대상의 일치 문제는 칸트가 묻기 전부터 이미 서양 형이상학이 끊임없이 묻고 탐색해왔던 중심 문제가 아니던가?

그런데 칸트가 이 문제를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형이상학적 난제로서 새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는 그가 『교수취임논문』에서 제시한 지성에 대한 입장들에 있었다. 「헤르츠 서신」에서 칸트는 그 자신이 『교수취임논문』에서 제시한 지성에 대한 입장들

간에 어떤 모순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그 모순이란 순수지성개념에 대한 칸트의 반-라이프니츠적 입장과 그럼에도 여전히 지성을 사물 자체의 인식 능력으로 간주하는 라이프니츠적 입장 사이의 충돌이었다. 칸트는 앞서 『교수취임논문』에서 라이프니츠를 비롯한 실재론적 이성론자들이 본유관념이라고 주장한 순수 표상을 순수지성 자신의 본성에서 근원적으로 획득된 개념이라고 말하였다. 다시 말해 순수 표상은 지성과 별도로 존재 및 사태 그 자체의 진상, 즉 형이상학적 진리를 자족적으로 담고 있는 객관적인 표상이 아니라 지성의 내적 활동성을 표시하는 주관적 관념, 내지는 위의 인용문에서의 표현처럼 ‘우리 안에 있는 표상’이라고 칸트는 말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칸트는 지성이 감성과 독립하여 순전히 자신의 본성에 따라 활동할 때, 같은 말이지만, ‘실재적으로 사용’될 때, 사물 자체와 그 관계를 인식한다고도 주장하였다. 하지만 지성이 순전히 주관의 활동성으로 이해되는 한, 어떻게 지성은 사물 자체와 그 관계들을 표상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형이상학적 인식을 획득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실제, 필연성, 인과성 등과 같은 개념이 순전히 주관의 내적 활동성을 표시하는, ‘우리 안에 있는’ 개념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개념들이 사물 자체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표상과 대상 — 사유(지성)와 존재 — 가 일치할 수 있는 경우란 대상이 표상을 전적으로 산출하거나 표상이 대상을 산출하는 경우일 것이다. 즉 표상과 대상 중에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산출하는 근거일 경우, 이 둘 간의 일치 가능성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지성의 자리와 기원이 이제는 인간의 의식 주관, 즉 대상에 영향을 받는 측면(감성)과 대상에 영향을 주는 측면(지성)이 철저히 구분되어 있는 그러한 지성 주관으로 한정되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지성은 앞서 상정했던 표상-대상의 일치의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게 되었다. 간단히 말해 존재 개념들이 감성과 근원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지성 주관의 자리로 이전됨으로써 오히려 존재와의 일치 가능성을 인과적인 방식으로 해명할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이제 칸트는 더 이상 『교수취임논문』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받아들여졌던 순수지성개념

과 대상간의 무매개적 일치 가능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힘들게 되었다. 다음의 진술은 칸트의 이러한 고민을 생생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지성은 (도덕적 목적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표상을 통해 객관의 원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상이 마음속의 지성적 표상들의 원인도 아닙니다. 따라서 순수한 지성개념들은 감각의 감각들로부터 추상된 것도 아니고, 감각을 통한 표상들의 수용성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혼의 본성 속에 자신의 원천을 가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객관으로부터 작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객관 자체를 산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 그러나 하나의 표상이 어떤 대상으로부터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촉발되지 않으면서도 그 대상에 관계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하는 문제를 (『교수취임논문』에서) 나는 침묵 속에 그냥 지나쳐 버렸던 것입니다. 나는 감성적 표상들이 사물을 나타내는 대로 표상하는 반면, 지성적 표상들은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표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상들이 우리를 촉발하는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통해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만약 그러한 지성적 표상들이 우리의 내적 활동성에 기초한다면, 그 표상들이 대상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일치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 이러한 문제는 항상 모호한 채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AA10, S.130~1, 인용문 중 두 번째 괄호는 필자)

라이프니츠-볼프 철학에 대한 칸트의 불철저한 비판으로 인해 초래된 이러한 문제는 『교수취임논문』에서는 미처 발견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칸트 자신이 말하듯이, 『교수취임논문』에는 지성의 본성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sup>19)</sup> 순수 표상들이 인간 지성에 단지 그의 '자리'(Sitz)뿐만 아니라 '기원'(Ursprung)을 가지는 순수한 지성의 개념으로 간주되는 이상, 더욱이 그러한 지성이 감성과 종별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상, 대상과의 무매개적 일치 가

19) “나는 『교수취임논문』에서 지성적 표상들의 본성을 단지 소극적으로, 즉 지성적 표상들은 대상을 통해 생기는 영혼의 변양들이 아니라고만 진술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AA10, S.130)

능성을 해명할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교수취임논문』에서는 그냥 지나쳐 버렸다. 다시 말해, 칸트는 순수지성개념이 주관의 활동성에 의해 획득된 주관적 표상이라는 그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존재와 사유의 무제약적 일치 가능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수취임논문』에서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가능한 지성에, 다른 한편으로는 무제약자에게 가능한 지성에 각각 한 다리씩 걸치고 있었던 『교수취임논문』에서 칸트의 지성에 대한 애매한 입장이 바로 표상과 대상, 사유와 존재의 관계가 칸트에게 새삼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칸트는 이러한 난제에 직면하여 사유와 존재의 일치 가능성의 전면적 폐기라는 회의주의적 입장으로 자신을 몰고 가지는 않는다. 칸트는 지성과 대상의 일치는 무제약적이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제한적인 방식으로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순수 수학의 표상 방식에서 엿보고 있었다.<sup>20)</sup> 따라서 이제 문제는 이것이다. 인간 지성에게 가능한 대상과의 일치의 방식, 다시 말해 비인과적인 방식으로 존재와 사유, 대상과 표상간의 일치가 가능한 방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일치 관계를 성립시키는 인간 지성의 활동은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이후 칸트가 자신의 전 사유 여정을 걸쳐 고민케 했던 초월철학의 핵심 문제이다.

20) “사물들이 우리를 촉발하는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통해 그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 그러한 지성적 표상들이 우리의 내적 활동성에 기초한다면, 그 표상들이 대상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일치는 — 대상이 표상들을 통해 산출되는 것이 아닐진대 —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객관들과 관련하는 순수 이성의 공리들은 어떻게 그것들이 이러한 객관들과 일치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일치가 경험을 도움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학에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객관들은 우리에게 앞서 이미 크기이고, 그리고 오직 우리가 그들의 수학적 표상들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만 객관은 크기로서 표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크기의 개념은 자발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리들은 선형적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AA10, S.131)

2. 문제 해결의 모색: 『순수이성비판』<sup>21)</sup>으로의 이행

## (1) 지성의 적용영역의 한정

칸트는 「헤르츠 서신」에서 『교수취임논문』의 결함을 지적하면서 라이프니츠-볼프 철학의 근본 전제인 지성과 대상의 무매개적 일치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한다. 이에 따라 지성은 감성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적용 영역을 가지는 유한한 능력으로 한계 지워지게 된다. 이를 우리는 앞서 인용된 다음의 진술에서 볼 수 있었다.

나는 감성적 표상들이 사물을 나타나는 대로 표상하는 반면, 지성적 표상들은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표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상들이 우리를 촉발하는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통해 그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AA10, S.130)

이러한 칸트의 의구심 가득 찬 반문투의 어조는 이후 계속되는 반성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지성개념은 현상에 관계할 때만 대상에 관계한다는 확고한 입장으로 발전한다.<sup>22)</sup> 그리하여 지성과 사물 자체와의 관계 문제는 지성과 현상의 관계로 해명의 실마리를 얻게 된다. 객관과 관계하는 순수지성개념의 적용 영역에 대한 이러한 한정은 이미 1770년 직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조각글들 곳곳에서 볼 수 있다.<sup>23)</sup> 이제 지성은 독립적으로 사물과 관계하는 능력이 아니라

21) 이하에서는 『비판』.

22) Carl, W., *Der schweigende Kant* (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1989), S.26.

23) 이와 관련한 예를 한 두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인식은 감성적이거나 지성적이다. 객관은 감성적이거나 지성적이다. 우리에게 감성적인 것과는 다른 어떠한 세계도 주어질 수 없다.”(R4349, AA17, S.514, 1771년 혹은 1773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

특히 칸트는 「헤르츠 서신」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의 조각글에서 형이상학적 개념에 대한 『교수취임논문』에서의 자신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비판한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형이상학의 사용은 순전히 부정적이다. 형이상학은 사물의 인식을 해명하는 것이 아니며, 독단적이지 않다. 대관절 감각이 아니고서

대상과 관계하기 위해 감성을 통해 수용된 표상, 즉 현상<sup>24)</sup>에 적용되는 능력으로 그의 적용 영역을 확정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지성과 감성의 관계에서 일어난다. 이제 지성과 감성은 『교수취임논문』에서처럼 단지 표상방식에서 구분되는 주관의 두 가지 능력으로만 간주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필연적 관계를 형성하는 상보적인 관계 속에서 각각의 작용 방식이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명되어지기 시작한다. 지성과 감성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입장 변화는, 지성이 사물 자체와 직접 관계하지 않고 감성을 통해 수용된 표상과 관계하는 능력으로 이해되면서 귀결되는 것이었다.

## (2) 표상-대상 일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명 방식의 모색: 인과관계에서 조건관계로

종래의 존재 자체의 개념으로 간주되었던 순수 관념들(실체, 인과 등등)이 이제는 주관에 그 자리와 기원이 두어짐으로써 종래의 진리 물음의 지평이었던 존재-사유 간의 관계가 현상-사유(내지는 감성-지성)간의 관계로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바로 앞 절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종래의 진리 물음의 지평의 변화가 불러 온 여러 문제를 가운데 칸트의 초월철학적 방법과 관련하여 특히

---

형이상학은 사물의 인식을 어디서 끄집어내야 한단 말인가?(R444, AA17, S.552)

24) 이에 따라 '현상'(Erscheinung)이라는 개념도 근본적인 수정을 겪는다. 이제 현상은 단지 감성적 주관의 심적 변양, 따라서 진리의 왜곡된 형태로서의 가상이 아니라, 인간 지성이 존재와 필연적인 관계를 맺는 고유한 지평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사물 자체'(Ding an sich)라는 개념도 '현상' 개념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와 위상이 달라진다. 즉 '사물 자체'는 존재의 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자신의 타자로 경험하는 유한한 지성에게 고유한 존재 개념, 다시 말해 인간의 유한성을 표시하는 '한계 개념'(Grenzbegriff)으로 바뀐다. 이와 아울러 '경험'(Erfahrung)이라는 개념도 『교수취임논문』에서처럼 단지 지성의 논리적 사용이 감성에 적용된 결과물(『교수취임논문』, §5)이 아니라 인간 지성이 타자와 관계하는 방식, 즉 유한한 지성의 활동 방식에 대한 총체적 규정을 지시하는 개념으로 칸트철학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 『비판』, B310~1 참조)

주목할 것은, 이제 더 이상 인과적인 방식으로 존재-사유의 일치 관계를 해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존재-사유의 관계가 표상-현상의 관계 — 내지는 지성-감성, 자발성-수용성의 관계 — 로 그 문제 지평이 바뀜으로써 이 둘의 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관계로 고찰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비판』의 한 대목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거기서 칸트는 「헤르츠 서신」에서 표상과 대상의 일치가 가능한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진술을 아래와 같이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되는 용어에 있어 많은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용어상의 변화는 그가 표상-대상 관계를 고찰하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표상이 그 대상과 일치하고, 양자가 반드시 서로 관계 맺으며, 이를테면 서로 마주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만이 가능하다. 대상만이 표상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와 표상만이 대상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에서 표상과 대상의 관계는 경험적일 따름이요, 표상은 선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현상에 있어서 감각에 속하는 것에 관해서 말한다면, 현상은 사실 선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후자의 경우에는 표상 자체는 (여기서는 의지를 통한 인과성은 문제로 삼지 않기 때문에) 존재에 관한 대상을 산출하지 않으나, 만약 우리가 표상을 통해서만 그 무엇을 하나의 대상으로서 인식할 수 있다면, 이때의 표상은 대상을 선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비판』, A92=B125-6)

대상이 표상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란 「헤르츠 서신」에서 대상이 표상을 산출하는 경우에 상응하고, 표상이 대상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란 표상이 대상을 산출하는 경우에 상응한다. 그러나 이 상응하는 두 진술은 단지 표현상의 차이만이 아니라, 칸트가 표상-대상의 관계를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지평에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둘 간의 일치 문제를 해명하는 방식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을 말해 준다. 그는 더 이상 대상과 표상을 두 이질적인 존재자간의 인과적 관계로 말하지 않고 대상이 표상을 가능케 하거나, 표상이 대상을 가능케 하는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즉 표상과 대상과의 관계



를 인과 관계에서 조건 관계로 그 표현을 바꾸어 말하고 있다. 이제 칸트는 두 이종적 요소들 — 표상 내적인 것과 표상 외적인 것 — 의 관계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표상 내적인 두 요소들 간의 비인과적 관계를 다룬다. 이는 앞서 살폈듯이 칸트가 표상-대상의 관계를 두 대립적인 인과적 관계 사이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표상과 그 표상의 대상과의 관계를 함께 구성하는 상보적인 관계들의 협동을 문제삼음으로써 결과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방식이 바로 『비판』에서 ‘초월적’(transzendental)이라는 형용사가 지시하는 주관과 객관간의 사태연관이다.<sup>25)</sup>

### (3) 지성의 두 가지 사용의 새로운 자리매김

『교수취임논문』의 결합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또한 중요한 변화는 지성의 두 가지 사용에 대한 새로운 자리매김이다. 앞서 『교수취임논문』에서 지성은 사용의 측면에서 두 가지로, 즉 논리적 사용과 실재적 사용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지성의 논리적 사용이란 감성을 통해 표상된 대상을 사고함으로써 경험 개념을 형성하는 작용이었다. 가령, 우리는 멀리에서 보이는 모종의 물체를 달이라는 개념으로 사고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직관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무규정적 현상(apparentia)(주변의 지평선 위에서 있는 갈색의 여러 음영을 가진 사각형의 모양)과 구분되는 하나의 대상(phaenomenon)으로서 인식한다. 이러한 지성의 논리적 사용을 칸트는 판단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지성의 본성적 능력, 즉 실재적 사용도 자신의 적용영역을 감성에 한정하고 있는 이상, 지성의 실재적 사용은 경험적 인식에 사용되는 지성의 논리적 사용과 구분되는 별도의 기능일 수가 없게 되었다. 지성의 실재적 사용도 논리적 사용과 마찬가지로 규정

25) ‘초월적’(transzendental)이라는 한정어는 바로 종래의 형이상학적 존재-사유의 일치 관계의 구도를 재편하면서 칸트가 새롭게 도입한 존재-사유의 사태연관의 방식을 지시하는 개념이다. 칸트에게 있어 존재-사유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라 가능성의 조건과 조건지워진 것의 관계로 다루어지며, 이때 가능성의 조건을 지시하는 용어가 바로 ‘초월적’이라는 말이다.

적인 현상들(phaenomena), 즉 경험(experientia)을 성립시키는 기능의 한 가지로 이해되어야 한다. 아울러 순수지성개념도 사물 자체의 표상이 아니라 현상을 표상하는 기능으로 새롭게 자리매김된다. 따라서 이제 지성의 실재적 기능에 대한 해명에 있어 지성의 논리적 사용 방식은 상당히 중요한 고찰의 대상으로 부각된다. 다시 말해 지성의 논리적 사용, 즉 판단 작용은 지성의 실재적 사용 방식 — 『비판』의 용어로 말하자면 지성의 초월적 기능 — 을 해명하기 위한 실마리로 기능하기에 이른다.<sup>26)</sup> 그리고 이 실재적 기능은 『비판』에 와서 지성의 논리적 기능, 즉 감성적 표상을 개념화하는 판단 작용을 가능케 하는 초월적 조건으로 자리매김된다. 이에 따라 지성의 실재적 기능을 통해 표상되는 순수지성개념은 더 이상 사물 자체의 인식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경험을 가능케 하는 초월적 형식으로 자리매김된다. 경험의 객체, 즉 대상을 그 형식적인 면에서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상과의 일치 문제를 칸트는 해결하고자 한다. 이는 『교수취임논문』에서 여전히 형이상학적 인식의 기능으로서의 순수지성개념의 지위를 박탈하고 단지 경험, 즉 현상의 가능 조건으로서의 우리 주관의 기능으로 새롭게 이해한 결과이다.

### Ⅲ. 나가는 말 : 『순수이성비판』으로의 이행

지금까지 우리는 『교수취임논문』과 「헤르츠 서신」을 중심으로 칸트에게 있어 지성이 어떠한 문제 맥락 속에서 반성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교수취임논문』에서 칸트는 라이프니츠-볼프 철학이 가지고 있는 독단적 측면을 비판하면서, 그와는 새로운 지성에 대한 주장을 감성과 지성의 구분, 지성의 두 가지 사용, 근원적으로 획득된 개념으로서 순수지성개념 등의 세 가지 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26) 이러한 해명의 방식이 바로 『비판』의 개념의 분석론 장에서 형이상학적 영역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범주 도출 과정이다. 『교수취임논문』에서 지성의 두 가지 사용 방식이 『비판』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새롭게 이해되는지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논의는 필자의 석사학위논문 3장 1절 참조.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존재와 사유의 무제약적 동일성을 한편으로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부정하는 모순을 내재하고 있었다. 여전히 라이프니츠-볼프의 독단성이 남아 있는 『교수취임논문』에서의 칸트의 지성에 대한 입장은 「헤르츠 서신」에서 칸트 자신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칸트는 존재와 사유의 무제약적 동일성을 이제 완전히 포기한다. 이는 곧 지성의 능력을 특정한 영역에 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한한 지성에게 가능한 대상과의 필연적인 관계 맺음의 방식을 해명하는 과제를 자신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게 된다. 요컨대 『교수취임논문』에서의 기획, 즉 감성과 지성의 구분과 기원 해명의 문제는 이제 지성의 적용 영역의 확정과 적용 방식의 해명의 문제로 구체화되며 『비판』의 문제로 구체화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전개과정은 곧 지성의 주체가 인간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결국 종래 형이상학과의 대결 과정을 통해 길어내어진 『교수취임논문』에서 칸트의 지성에 대한 새로운 입장은 그의 자기비판과 수정을 통해 다시금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게 된다.

1. 지성은 감성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적용 영역을 가진다. 즉 지성의 활동 영역은 감성을 통해 수용되는 표상에 한정된다.
2. 이에 따라 감성과 지성은 단지 표상 방식에 따르는 두 구분되는 능력이 아니라 현상을 성립시키는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
3. 지성의 두 가지 사용도 현상을 성립시키는 동일한 지성의 작용의 두 계기로 이해된다.

이러한 지성에 대한 입장 변화는 유한한 인간 지성에게 가능한 대상과의 일치 방식에 대한 칸트의 해명 과정에서 비롯된다. 결국 지성에 대한 새로운 탐구 방식, 즉 기원에 탐구는 인간 자신에게 가능한 지성과 그것이 존재와 맺는 관계방식의 탐구로 구체화된다. 『비판』은 바로 이러한 칸트의 탐구 방식이 구체화되는 과정이 도달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제 칸트는 존재와 사유의 무제약적 동일성을 포기하는 대신 지성이 자신의 본성에 근거하여 대상과 필연적으로 관계할 가

능성의 탐구로 전환된다. 이는 곧 지성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대가로 주체성을 얻고자 하는 칸트의 의도를 반영한다. 인간에게 가능한 대상과의 일치 방식의 탐색이라는 『비판』에서 칸트의 작업은 결국 유한한 인간이 타자 가운데에서 주체로 존립하는 가능성을 해명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